

# 과학기사의 두 마리 토끼 잡기

글 | 박성철 \_ 국회도서관 과학기술분야 입법정보연구원 sc0314@nanet.go.kr

**과**학뉴스는 ‘과학지식’을 다루는 ‘뉴스상품’이다. 과학지식을 다룬다는 점과 뉴스상품이라는 속성은 서로 상충된다. 두 속성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과학지식은 정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초기조건과 변수들을 꼼꼼히 제시해 주어야 하고, 다른 연구자가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 연구는 작은 차이에 의해서도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뉴스상품은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가장 빨리 상하는 상품’이라는 표현처럼 아무리 중요한 뉴스도 시기를 놓치면 뉴스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사건의 구체적 배경이 파악되지 않았어도 결과만 확인되면 한 줄짜리 일보를 먼저 띄워야 한다.

## ‘정확성’ vs ‘신속성’은 선택의 문제?

과학뉴스의 취재현장에서 과학지식으로서의 ‘정확성’과 뉴스상품으로서의 ‘신속성’을 조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기자가 다양한 과학분야의 첨단 연구성과를 짧은 시간 내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정확성을 추구하자니 신속한 보도가 어렵고, 신속하게 보도하자니 정확성에 허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선택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첫 번째 대안은 뉴스로서의 신속성을 포기하고 정확한 과학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여러 과학자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공부도 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최근의 자연현상이나 사건을 해석하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동향을 설명하는 기사들이다. 일부 신문들의 과학면에 실리는 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대안은 과학지식의 정확한 전달을 포기하고 단순 사실

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연구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기보다 결과 중심으로 압축하여 서술하는 기사다. 국제면이나 인물면 등에 실리는 국내외 과학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어느 과학자가 ‘사이언스’에 논문을 실었다’는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것이다.

이 두 가지 대안들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된다. ‘정확성’ 기사는 독자들의 주목을 유인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과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눈여겨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와 신문사만이 자족하는, 읽히지 않는 기사가 되기 쉽다. ‘신속성’ 기사는 과학자들이 언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된다. 대개의 경우 연구의 중간과정이나 배경이 과감히 생략되어 있고, 과장된 평가와 해석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한국 신문의 과학기사는 이러한 두 가지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특별한 조건에 있었다기보다는 과학보도가 어떤 지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과학담당기자 개인의 능력과 선택에 맡겨두었을 뿐이다. 과학을 전공했고 과학의 정확성에 관심이 있는 기자는 ‘정확성’ 기사를 추구하고, 저널리스트의 훈련에 익숙해서 ‘신속성’ 기사에 자신 있는 기자는 ‘신속성’ 기사를 쫓았다. 신문사 간부와 경영진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었던 탓에 어떤 기사든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과학기사가 어떤 지향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개별 신문사 차원에서 또는 신문 매체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과학뉴스의 비중을 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과학기자의 조건까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정확성’에 비중을 둔다면 이공계를 전공하고 과학적 기본지식을 갖춘 자원이 적절할 것이고, ‘신속성’에 치중한다면 과학지식보다는 저널리즘적 훈련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언론사 조직 전환하면 신속·정확한 기사 가능

그렇다고 과학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과학자와 일반 독자 모두로부터 환영받는 과학기사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겨레’ 신문이 새롭게 고정편집하고 있는 과학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사에서 ‘정확성’과 ‘신속성’이 조화롭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폐혈증 면역 단백질 ‘얼굴’ 찾았다” 기사(9월 27일자)는 한국과학기술원 이지오 교수팀의 ‘셀’지 발표논문을 소재로 하고 있다. 오랜 실패 끝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단백질의 3차원 영상을 얻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다른 신문들이 연이은 논문 게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폐혈증 치료제 가능성을 들먹이며 단신 처리한 것과 비교된다. 특히, 연구의 시행착오 과정을 그래픽을 이용해 알기 쉽게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단백질의 3차원 결정체’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다. 과학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과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기사다.

“한반도에도 티라노사우루스 살았다” 기사 역시 연구과정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채집과정에 대한 일화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화석 이빨의 톱니구조의 분석과정을 사진과 함께 실어 흥미를 돋우고 있다. 유명 과학자와 해외학술지 중심의 취재에서 탈피해 현직 교사들의 논문에서 발굴한 기사라는 점에서도 평가받을 만하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기

사에서도 그렇다. 다른 신문들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사진 기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남극방문 기사로 지구온난화를 다뤘다. 반면에, 한겨레는 ‘인공화산’이나 ‘바닷속 파이프’ 구상 등 지구온난화를 막을 과학적 해결방안을 소개하고 있다(10월 4일자, 18면).

무엇보다도 이 기사들은 생산유발효과가 어떻고 미래 시장규모가 얼마고 하는 식으로 연구결과를 과장하지 않고서도 눈길을 잡아둘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그 보다는 과학연구의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과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흥미를 끌고, 독자의 오해나 확대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또, 연구결과 발표시점의 시의성이나 현실문제의 시의성도 놓치지 않고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과학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이제까지 어려워서 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아서 외면된 과제다. 다행히 몇몇 신문들은 기자 개인의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과학담당기자 개인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언론사가 구조적 조직적 차원에서 덤벼들어야 한다. 과학뉴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라인에 맞서 오프라인 언론사의 생존을 위해서다. 과학기사가 외면 받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이 아니라 절름발이 과학기사이기 때문이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는 온전한 과학기사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편집국에 ‘과학부(팀)’부터 만들어야 한다. ㉓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